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October/November 2008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and **2** blank pages.



Passage 1 을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Passage 1

아래 글은 이법선의 <오발탄> 중 일부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실항민이 된 철호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래 부분은 집에 들어온 철호와 철호의 동생 영호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형님!”
 새삼스레 부르는 동생의 소리에 철호는 손에 들었던 어린애의 신발을 아내에게 돌리며 영호의 얼굴을 뺨히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두 한번 살아봅시다. 제길, 남 다 사는데 우리라구 밤낮 이렇게만 살겠수? 근사한 양옥도 한 채 사구, 장기판만한 문패에다 형님의 이름 석자를, 제길, 장남도 보게 써서 대못으로 땅땅 때려 박구 한번 살아봅시다.” 5
 군대에서 나온 지 이년이 넘도록 아직 직업도 못 잡은 영호가 언제나 술만 취하면 하는 수작이었다.
 “그리고 이천만 원짜리 고급 차도 한 대 샅시다. 거기다 똥통이나 신고 다니게. 모든 새끼들이 아니꼬워서. 일이야 있건 없건 종일 똥똥 울리면서 동네를 들락날락해야지. 제길, 하하하.” 10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영호는 별정계 열에 뜬 얼굴을 하고 담배 연기를 푸 내뿜었다.
 “또 술 마셨구나.”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 달 안으로는 어찌 되든 간에 결판을 내구 말 생각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요?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이지요?” 15
 “그럼 뭐 별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있으면.”
 “.....?”
 어처구니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라왔다. 철호는 맥주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졌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었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25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담배 꽁초에다 불을 댕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30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 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35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너는, 너는.....”
 “.....” 40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홍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뺨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지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뺨스 같은 것이죠. 입으나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털 굵은 바가지에다 되는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짝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쫓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 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그건 억설이야”

“억설이요? 그런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네 말로는 잘살자면 꼭 양심이고 윤리고 뭐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야?”

“천만에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렇다는 겁니다. 즉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살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거기에 비껴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 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는 폭 고개를 떨구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후르르 떨고 있었다. 철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뒷목에 앉아 있던 철호의 아내가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손끝으로 장난처럼 문지르고 있었다. 영호도 훌쩍훌쩍 코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래요. 사람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서 살자면, 생명만이라도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아요. 허허.”

45

50

55

60

65

70

75

- 1 **Passage 1** 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할 때에는 가능하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 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 5=25 점입니다.)

- (a) 5 줄에서 ‘장기판만한 문패’와 ‘장남도 보게 써’란 각각 어떤 뜻인지 쓰십시오. [2]
- (b) 5 -6 줄의 ‘장기만한 문패에다 형님의 이름 석자를 장남도 보게 써서 대붓으로 땡땡 때려박구 한번 살아봅시다’란 영호의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지 자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2]
- (c) 11 줄에서 영호가 ‘별경계 열에 뜬 얼굴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1]
- (d) 15 줄에서 ‘전차값도 안되는 월급’이란 무슨 뜻인지 쓰십시오. [1]
- (e) 20-21 줄에서 ‘손끝이 따가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쓰십시오. [1]
- (f) 52-60 줄에서 영호가 가지, 나이롱 뺨스, 리본, 허수아비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자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4]
- (g) 58-59 줄에서 ‘까마귀쫓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설명하십시오. [1]
- (h) 68 줄의 ‘영호의 마음 한 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찾아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1]
- (i) 75 줄의 ‘물고 뜯고 하는 마당’이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간단히 쓰십시오. [1]
- (j) 75-76 줄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아요’는 영호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십시오. [2]
- (k) 영호의 표현을 통해 볼 때 철호는 어떤 인물인지 자신의 말로 요약하십시오. [4]

Passage 2 를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Passage 2

이 글은 유진오의 <김 강사와 T 교수> 중 일부분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지식인으로서 현실 비판적 성향이 강하던 김만필은 S 전문학교에 강사로 취직을 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갈등합니다.

김만필은 예를 받고 싶지는 그 짧은 동안에 착잡된 모순의 감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였다. 대학 시대에 '문화 비관회'의 한 멤버이었던 일, 졸업하자 '취직'을 위해 일상 속으로 멸시하던 N 교수를 찾아갔던 일, N 교수로부터 경성의 어떤 유력한 방면으로 소개장을 받던 일,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후 수차 「조선 일보」, 「동아 일보」 등에 독일의 좌익 문학 운동을 소개하던 일, 그리고 H 과장의 소개로 작년 가을에 이 S 전문 학교 교장을 찾던 일 - 이 모든 기억은 하나도 모순의 감정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생의 모순의 축도를 자기 자신이 몸소 보이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었다. 지식 계급이란 것은 이 사회에서는 이 중 삼중 사중 아니 칠중 팔중 구중의 중첩된 인격을 갖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어떤 자는 그 수많은 인격 중에서 자기의 정말 인격을 명확하게 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자기 자신의 그 수많은 인격에 현황해 끝끝내는 어떤 것이 정말 자기의 인격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 두가지 중의 어느 것인가?

5

이 모든 생각이 김만필의 머리를 번개같이 지났다. 그는 학생들이 경례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지긋지긋하게 지리하게 생각되었다. 어째 눈이 팽팽도는 것 같고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10

흐린 하늘에서 가느다란 눈발이 날리고 가게 처마마다 '세모 대매출'의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연말이 가까운 어느 날 아침 김 강사는 수업하러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T 교수와 마주쳤다.

15

"몹시 춥습니다."

"대단히 추운데요."

인사를 던지고 지나려니까 T 교수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저 잠깐만."

하고 돌아서서 김 강사를 멈추었다.

"저- 이런 말씀은 하기가 좀 무뎠구먼두-"

하고 T 교수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소리를 낮추어,

"김 선생, 가을 생각하세요? 저 H 과장 집에서 만나던 밤"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김 강사는 잠자코 T 교수를 쳐다만 보았다. 교수는 여전히 웃으며,

"내가 과자 상자 들고 간 것 보았지요. 세상이란 다 그런 겉니다. 우리 교장도 그런 것을 대단 생각하는 사람이니 연말도 되구 하니 한 번 과자나 한 상자 사가지구 찾아가 보시란 말이요."

"흐....."

김 강사는 할말이 없어 얼굴을 삐뚤어뜨린 웃음으로 대답하고 교대로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가르치는 데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T 교수의 그 말에만 정신이 팔렸다. T 교수는 대체 무슨 동기로 자기에게 그런 말을 또 들려 주는 것일까? 친절인가? 조롱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T 교수의 그 말로 교장이 김 강사에게 대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20

25

그날 밤에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 과자를 한 상자 샀다. 윗덮개에 교장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명함을 붙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종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창피하다. 아무리 자리를 위해서라 해도 차마 이 것만은 할 수 없다. 이제 이왕 노염을 산 다음에야 이까짓 과자 상자를 사다 주면 무얼 하느냐. 도리어 노염을 돌올 뿐이다. 내가 이것을 사다 주며는 등 뒤에서 T가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아. 이것이 세상이 아닌가. 나는 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또는 나의 어리석은 심정을 조롱하는 사람을 도리어 경멸하면 그만 아닌가. 선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라 도리어 받는 자의 인격이 아닌가

30

35

그러나 김 강사는 드디어 그 과자 상자를 교장의 집에까지 가지고 갈 용기는 없었다. 전차를 타고 가다 말고 중간에서 내려 한참이나 헤매다가 생각난 것이 욕심쟁이 일가 간에

40

돌림뱅이가 난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뜻 아니한 선물에 무슨 영분을 모르고 그러나
넌지시 과자 상자를 받아들였다.

하루는 T 교수가 또 예의 인품 좋은 웃음을 띠고 김 강사를 찾아와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만 어디로 가자고 청했다. 김 강사는 지금까지 T 교수와 접촉해서 유쾌한 기억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었으나 어쨌든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두사람은 언젠가 같이 갔던 ‘세르팡’이라는 찻집으로 갔다. 그러나 T 교수의 이야기는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불쾌한 것이었다.

50

“어제 저녁에 H 과장을 만났더니 김 선생을 좀 만나자고 그러디다……우리 교장의 성미는
내가 잘 아니까 요전에도 무슨 과자 상자라도 갖다 주라니까 아마 안 그랬지요. 허……김
선생은 실례의 말이지만 아직 세상을 모른단말요. 무슨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지마는 어찌 도무지 공기가 좀 재미 없는 듯하던걸요. 아마 H 과장도 이 근래는 한 번도
안 찾아갔지요. 그것도 다 김 선생의 선부른 짓이란 말씀이요. 김 선생으로 말하면 H 과장의
추천으로 들어왔겠다. 잘만 하면 차차 시간도 더 얻을 수 있구 할 텐데 왜 어리석게 구느냐는
말씀요.”

55

T 교수는 충심으로 김 강사를 동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어찌 생각하면 그 말도 그럴 듯한
말이나 김만필에게는 어찌 T의 하는 말이 뺨 치고 등 만지는 수작같이 생각되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H 과장은 곧 찾아가지요.”

60

그는 침이나 뱀듯이 대답하였다.

2 Passage 1 과 Passage 2 를 읽고 다음에 답하십시오.

(a) Passage 2 의 첫머리에 김만필이 ‘모순의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Passage 1 에서 영호와 철호가 각각 자신들의 삶의
철학에 관해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 연결하여 요약하십시오.

[10]

(b) Passage 1 과 Passage 2 에 등장하는 인물 넷 가운데 철호와 나머지 셋은 어떻게 다른
태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나머지 세명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찾아
요약하십시오.

[5]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 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 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 점, 언어의 정확성에 5 점)

